



우리의 프란치스칸 청년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프란치스칸 청년위원회가 여러 번 밝힌 바와같이, 우리의 사명은 기도와 양성, 사회 정의의 실천을 통해 프란치스칸 삶의 방식을 공유하도록 우리를 부르고있다. 비록 우리가 미국에 단지 몇개의 공식적인 유프라 프란치스칸 청년회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작년 연례 보고서를 읽으면서 미국 전역에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칙 제 24 조에 있는 " 다른 프란치스칸 그룹, 특히 청년 그룹과도 만남을 마련해야 하고 프란치스칸 삶과 교회의 삶이 향상되도록 더욱 적절한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개인, 형제회및 지역이 있습니다.

최근에 파라과이에서 있었던 재속 프란치스코회-유프라 총회의 결론 문서는 "재속 프란치스코회과 청년그룹 (유프라)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고 듣고, 대화하고, 기회와 존재감을 가지는것이 필수적! "이라고 말합니다.

전국적으로 사람들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있다. 우리가 2023 년 국가총회에서 공유한 파워포인트 리포트는 우리가 보고서에서 배운 것 일부를 강조했으며,봉사자들이 그들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생활의 이 중요한 영역에서 노력을 강화하기위해 활력을 불어 넣었습니다.

지역 애니메이터 및 봉사자들과의 대화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이 하나 는 " 미국에는 왜 청년 프란치스칸 그룹이 없습니까?" 이다.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그들의 친구들과 접촉할 때, 그들이 지시할 수 있는 청년 프란치스칸 그룹이 몇개밖에 없다고 걱정한다. 나의 빠른 대답은 미국의 청소년들이 유프라가 잘 설립된 국가의 청소년들과 다른 요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대들과 청년들과 함께하는 천주교 사목에 관한 국민대화 최종 보고서" 에는 우리는... 젊은이들의 긴급한 필요가 다른 나라와 대륙에서, 그리고 심지어 하나의 신앙의 공통성 안에서도 매우 다르다는 것을 상기합니다. 미국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은 세계의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지역사회내에서도 독특한 도전에 직면해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왜 현실인지에 대한 몇 가지 간단한 설명을 시도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으므로 한 학기 동안의 긴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 사회 내에서도 매우 다양한 국제 사회입니다. 다양성은 선물입니다! 표현 된 각 문화는 독특한 관점, 전통 및 생활 방식을 제공합니다. 비록 이것이 우리나라에 멋진 맛을 주지만, 그것은 또한 도전을 제공합니다. 유프라가 중요한 국가에서 우리는 대부분 가톨릭 사회가 프란치스칸의 존재와 함께 꽤 자주 발견합니다. 젊은이들은 프란치스칸의 카리스마와 유프라의 영향으로 자라서 천주교에 깊이 빠져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경험하는 다양성과 자유의 결과로, 젊은이들은 종종 정체성의 부족에 직면하게 된다. 그들은 자동적으로 자신들이 특정한 문화나 종교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 청소년들은 문화적 정체성이 하나뿐이어서 소속감이 더 강하다. 사실, 젊은이들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집을 떠나는 우리나라의 전통은 이러한 정체성의 결여에 기여한다. 갑자기 분열과 혼합 된 메시지로 가득 찬 사회로 밀어 넣어 미국 청년들이 "어른되기"를 어렵게 만듭니다. 다른 문화권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결혼하거나 중요한 삶을 변화시킬 때까지 집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선물이지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투스 비비트 (Christus Vivit) 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현대의 삶은 행동과 주의를 산만하게 할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제공하며, 세상은 그 모든 것을 타당하고 선한 것으로 제시한다" 고 제안한다. 우리 모두, 특히 젊은이들은 잽싸게 움직이는 문화에 빠져있다. 분별의 지혜없이 우리는 쉽게 모든 지나가는 추세에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iGen 이라는 책에서 왜 오늘날 고도로 연계된 아이들이 덜 반항적이고 관용적이며 덜 행복하고 완전히 어른이 될 준비가 되어 있지않은지, 저자인 Jean Twenge 박사는 ' 새로운 미디어는 십대들을 더 외롭고, 불안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사교적 기술과 심지어 수면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칸 청년 위원회는 이러한 그리고 다른많은 차이점들을 더 깊이 파고들고 있다. 재속 프란치스칸인 우리는 " 젊은 가톨릭 신자들에게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독특한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그것이 젊은이들의 요구에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 를 질문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성스러움을 향한 그들의 여정에서 격려와 영감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노련한 가톨릭 신자들인 우리는 그들의 에너지와 열정, 그들의 질문과 도전, 그리고 성스러움을 향한 우리의 여정에서 그들의 젊은 존재감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순례자로서 함께 걷는다.

우리의 젊음을 사랑하고 그들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용기와 시간을 모아줘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곧 월간 줌 모임을 재개할 것이다. 우리는 그곳에서 당신을 만나기를 희망합니다!